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만족도 연구

김미옥*

*충북연구원

e-mail:miok96@cri.re.kr

A Study on Satisfaction in Chungbuk's Farmers and Fisheries Allowance

Mi-Ok Kim*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은 충북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를 농업인에게 조사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환경보전,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계승 등)보전과 증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 조건이 해당되면 매년 일정 금액(현재 1년에 6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본 연구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713명의 농업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이유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37.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이 25.9%로 다음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도움 정도에 대해 대부분의 항목에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0%이상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영농활동·농업경영(5.56점)'에 대한 도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1. 연구배경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만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희인력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 투입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이와 더불어 농촌 임금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계절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이후 외국인 근로자로의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짐과 더불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유희인력들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잉여 노동력을 농촌으로 유입하여 농촌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해보려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도시의 유희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및 중개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60%를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농촌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단순히 필요인력에 대한 정보제공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마다 농업인과 도시농부에게 만족도 조사를

2. 연구방법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충북 도내 농업인 713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12월 동안 대면조사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22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내용

설문응답자 713명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43.9%), 성별로는 남성(74.9%), 지역별로는 청주시(18.4%)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43.9%) > 50대(24.0%) > 70대 이상(18.9%)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74.9%) > 여성(25.0%) 순이었으며 설문응답자 지역은 청주시(18.4%) > 음성군(12.8%) > 영동군(11.6%) 순이었다.

충청북도 농업인들이 이해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이유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37.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이 25.9%로 다음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도움 정도에 대한 결과는 대부

분의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0%이상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를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7점 척도점수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농활동·농업경영(5.56점)’에 대한 도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모든 항목 대해 타 연령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70대 이상은 모든 항목에서 타 연령에 비해 높게 평가하여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공익적 활동 증가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항목이 ‘긍정적’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으며 ‘농어촌환경 개선’은 ‘매우 긍정적’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척도 점수는 ‘농어촌 활력 및 공동체 활동 강화’가 5.66점으로 가장 높았다.

4. 시사점

농업은 농산물 생산 외에 다양한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농업인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익적 활동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또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고령의 수급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복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수령액 증액도 필요하지만 수령인 확대도 필요하다.